

# 칠곡군 밀원수 대단지 조성계획

한국양봉협회 칠곡군 분회장 박 명 우

(부이사관), 정현관 박사, 김세현 박사와 칠곡군청(배상도 군수, 권승갑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산업과장), (사)한국양봉협회(황협주 부회장), 이준식 칠곡군산림조합장, 칠곡군봉우회(박명우 회장, 이수성 고문 등 6명)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산림청 최완용 부장은 배상도 칠곡군수에게 칠곡군의 헛개나무 조성 후 관리까지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건령산 대규모 산불 발생지 현장에 직접 짚차 3대를 동원하여 헛개나무 등의 조림 가능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배상도 칠곡군수는 예산, 인력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실행할 것이며, 따라서 우량 헛개나무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더해 본협 황협주 부회장은 칠곡군의 헛개나무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칠곡군봉우회 박명우(꽃이네) 회장과 이수성(야촌) 고문이 헛개나무 등 기능성 밀원수 조성 및 채밀에 칠곡군이 적당한 지역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토론한 후 협의를 마쳤다.

협의 결과, 380ha 가운데 식재 가능한 면적 180ha에 헛개나무 50%, 그 외 옻나무, 옻나무, 오가피 등 5~6종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식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헛개나무 축제, 옻나무 축제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토대를 세웠다.

이 계획에 의해 칠곡군에 헛개나무 등 기능성 밀원수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 아카시아 나무의 황화현상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용과 밀원수의 역할로 인해 양봉농가와 산주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칠곡군봉우회에서 푹푹 뭉쳐 대응해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이며, 이번 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더 이상 아카시아꿀 채밀량 감소와 사양꿀 등에 대해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는 마누카꿀처럼 기능성 꿀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난 7월 27일 칠곡군청 및 칠곡군 지천면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그리고 건령산 대규모 산불발생지(380ha) 현장에서 밀원수 대규모 조성단지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헛개나무 등 기능성 밀원수의 대규모 조성단지 계획과 더불어 헛개나무 축제 계획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완용 산림유전자원부장

정현관 박사 역시 헛개나무꿀 채밀시험을 해본 결과 아카시아꿀에 비하여 5배(꿀 2.5배, 과명, 잎, 물 2.5배)나 많은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중에 2배의 효과만 달성해도 꿀에 대한 완전관세 철폐를 감수하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남에서는 집집마다 마누카 꿀을 보관하여 먹고 있다고 하니 헛개나무꿀, 엄나무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전국의 양봉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밀원수를 열심히 심어 힘든 이동을 하지 않고 고정으로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는 양봉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 농협, 꿀 유통가격 ‘폭리’

소비자 판매가격, 농가수취값의 2배 훌쩍

### ▶저가 수입산 활개 ‘소비 위축’

꿀 유통가격의 폭리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양봉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유래 없는 흉작으로 꿀 생산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농가에서 수취해가는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벌꿀(2kg)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 3만6000원에서 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농가수취가격은 최고 품질(수분함량 20%미만)이 288kg당 220만원, 수분함량이 많은 저품질 꿀은 170만원선이라는 것이다. 이를 1kg으로 계산하면 농가수취가격은 약 7640원으로 소비자가격(18000~20000원선)의 반값에도 못미친다. 여기에 포장비, 인건비, 광고 등을 포함해도 높은 가격이다.

경남 창원에 양봉농가 승병권 씨는 “양봉농가들은 지금 인건비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포장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도 농가수취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정문기 농협중앙회 차장은 “현재 농협계통 매장은 약 10%의 마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포장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통비, 광고비, 할인행사 등 추가비용이 1kg당 4000~5000원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생산농가도 어려운 실정이고 전국 벌꿀유통업체에서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판매를 꺼리는 실정”이라며 “값싼 수입꿀에 밀리고 국내산 꿀 소비량 자체도 줄고 있어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현 회장은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의 유통가격의 폭리보다는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